

韓藥 規格化 事業에 對한 所見

오 석 윤

(경기 부천원한약방)

• 序 論

韓藥 規格化事業은 實利的인 면에서 진즉 推進되었어야 했던 事業이다. 겨우 醫保事業이라든가 醫藥分業을 目前에 두고 拙速으로 서두르는듯 싶어 아쉬운 現實이다. 規格化 事業의 核心은 韓藥의 發展과 農村 發展에 寄與하는 方向에서 檢討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國內 藥材生産을 保護하는 政策이어야 한다 國產 藥材가 他國 生産 藥材에 比해서 絶對 優秀하고 우리 農村 經濟에 至大한 寄與를 한 産業이기 때문이다. 規格化의 嚆矢로는 人蔘과 熟地黃을 들 수 있다. 人蔘은 國營 事業으로 시작되었으며 熟地黃은 製藥 許可 事業으로 出發하였다. 日帝는 植民地 收奪 政策으로 이를 採擇했다. 栽培人의 利益을 搾取하는 方案으로 熟地黃을 許可 規定으로 한 것이다. 그러다가 解放 後 모든 規制가 緩和되는 듯 하였으나 完全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이루어할 規格化는 韓醫藥의 發展을 위해서 하는 規格化와, 栽培者를 위한 시책이어야 한다.

• 本 論

1. 韓醫藥의 發展을 爲해서

韓藥은 生産地에 따라 그 성분과 효과의 差異가 많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事實이다. 또한 採取 時期의 적기 여부도 중요하다. 保管 亦是 品質을 살리는 要點이라 할 수 있다. 더욱 無視할 수 없는 것이 成分의 含量이다. 그러나 금번 規格品 標示에는 產地, 國籍 重量, 包裝, 會社名 뿐 그 重要한 것이 빠졌다 이것은 規格化가 아니라 몇몇 乾材商人들에게 利權을 준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韓藥 成分의 含量 分析은 有機 定性, 定量 分析이란 技能的 難關이 있다. 따라서 先人들은 人蔘의 含量 分析이 되지 못하던 時節 產地, 年度, 等級, 標示로 이러한 問題를 解決했다. 이번 規格化에 그것이 引用되었어도 反對意見은 적었을 것이다. 韓藥의 有效成分 含量때문에 產地 生長年度, 採取年度가 重要한 要件이 되는 것이다.

□ 논 단

우리 韓藥人들에게 藥效 成分 含量은, 弓手에게 좋은 화살이며 名射手에게 精密한 彈丸이라 할 수 있다. 患者의 正確한 診斷 處方도 重要하지만 藥效의 正確性은 그에 못지 않은 核心要件이 된다. 최소한 人蔘의 例에 따라 生産地名, 成長年度, 採取年度만이라도 表記要件으로 規定하였어야 한다. 不完全한 法은 不信을 가져오고 不信은 犯法者를 만드는 結果를 가져온다. 惡法의 施行을 서두르지 말고 時間을 가지고 檢討함이 옳은 길이라 생각된다

2. 生産者が 保護되는 規格化事業

원래 採藥은 山村窮民들이 많이 하는 生活手段이었다. 궁색한 農民이 農閑期 副業으로 채취한 韓藥은 항상 乾材商의 取利對象이었다. 그래서 그런 모순을 해결해 보겠다고 生藥協同組合을 만들었으나 財力 不足과, 人材 不足은 生藥 종자상인의 利用 機關이 되었고 명색뿐인 存在로 남아있다.

行政當局은 기능인을 양성하고, 資力을 補助하여 農村 更生의 方便으로 삼음도, 우루과이 라운드 衝擊으로 絶望하는 農民에게 多少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生産者が 主産地의 명예를 걸고 생산하는 藥材와 생산 國名만 表記되어서 팔려 가는 藥材를 생산하는 者와는 質과 生産者의 士氣面에서 분명히 差異가 있음을 疑心치 않는다. 우리 韓藥人은 國産藥材의 生産 保護를 絶對 等閑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國産 한약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天惠의 선물인데, 지금 국산이 사라져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行政的 補助를 통해 다시 生産力을 불어넣는 것도 規格化事業의 중요한 要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방대하고 중요한 사업을 쉽게 생각하고 命令式 行政으로 해결 하려는 발상은 시정 되어야 한다. 民이 앞장서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 주고 뒷받침 해주는 식의 행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民主 행정은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도와주는 행정일진데 우리의 행정은 日帝 식민지 교육탓인지, 정당성, 타당성을 떠나서 힘이 면 되고 돈이면 되는 세상이 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3. 輸入 藥品에 對한 管理 規制를 해야 한다.

현재 輸入 약품에 대하여도 感별후 通관 許可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規格品 藥材를 規制化하려면 먼저 藥材의 分析을 통하여 含量 標示를 한 然後에 規制함이 行政의 순서라고 할 수 있다. 成分 含量도 알 수 없이 무조건 規格品 포장만 보고 規格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일

이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輸入 약품중에는, 제약회사에서 주성분을 추출해버린 製藥粕이라 의심 할만한 半夏, 南星, 桂枝, 水附子 등이, 나돌고 있다. 만약에 사실로 製藥粕이라면 국가적 망신이다.

이렇게 엉망인 판에 含量 標示없는 規格化는 알맹이 없는 껍대기뿐인 사업일 수 밖에 없다. 時間이 걸리더라도 充分히 준비하여 완전한 規格化事業, 그리고 생산자를 위한 韓醫藥의 未來를 열어 주는 規格化事業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4. 韓醫藥 發展을 위한 韓藥

醫保가 시행되는 경우, 한약재의 수요량은 현재의 생산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생산량이 不確定한 현상으로는 먼저 保管 施設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는데, 그때문에 몇몇 회사에 規格化 사업을 許可하는 형식으로 依賴한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措置였음이 아닐까 생각된다. 첫째 한약 보관이 단순히 다른 농산물과 같이 冷凍 保管에 그치는 물건이 아니다. 輸入 冷凍肉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質의 低下를 가져 오게 된다.

이 低下된 약재의 1년 保管科를 加算한 高價의 藥값 負擔을 모두 實需要者가 負擔할 것이다. 生産者는 生産者대로, 收益의 減少를 强要받을 수 밖에 없을 때도 있다. 금년 超過生産이 明年에 이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例로 米穀의 生産이 그렇다. 매년 豊年이지만 農村은 生産費 負擔에 시달리고 있다. 限定 需要物인 韓藥材에 있어서는 深刻性이 더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韓藥 保管 문제는 生産者가 生産者 모임인 生藥協同組合에서 함이, 調節面에서 妥當한 일이라 생각된다. 보관 기술 연구에 있어서도 個別 會社로서는 過重한 부담이다. 行政的 支援으로 學術的 研究를 專攻하는 機關에 依賴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萬若 個別 會社에서 特殊 方法을 開發한다면 초보적인 방법마저도 權利 主張을 하게 될 것이니, 시작 段階에서 制動을 받는 격이 되어 발전을 저애당하게 될 것이다. 疉연히 韓藥 資源에 대하여 연구 전공하는 학교가 있으니 연구를 의뢰하여 基礎 段階에서는 廣範圍하게 지도 보급함이 옳은 施策이라 하겠다.

貯藏方法의 研究도 뒤따라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輸入 冷凍肉처럼 맛이 모자랄 정도의 差異라면 별것이 아니지만 藥의 成分의 變質은 效能의 蹉跌을 가져온다. 韓藥에 있어서 效能의 差異가 있다면 문제시 안할 수 없다. 過年된 山茱萸에 있어서와 같이 有機酸이 많아지고 甘味가 떨어져 胃에 負擔을 주는 境遇에는 문제다.

個人 會社의 경우, 保管 費用과 新産 藥材와의 價格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특히 新産 藥材에 比해서 原價, 保管費를 무시하고 補償없이 質에 따라 價格이 策定될 것인지? 그렇게 公正하게 處理할 個人 會社는 期待하기 어렵다 이는 生産자와 實需者가 만이 公正하게 해결할 수 있다. 韓藥의 質에 影響을 주지 않고 解決이 되어야지, 해묵어 質이 저하된 藥材를 混合해서 處分한다거나 價格을 조작한다면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豫見되는 結論이다. 個人會社로서는 堪當하기 어려운 犧牲이요, 또한 醫保 當局이 個人會社에 報償함도 雜音의 素地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러한 면으로 보아 生産자 결합체로 生藥協同組合이 이 必要한 前提要件이라 할 수 있다. 지금 規格化를 許可받은 會社는 販賣權을 獨占 委任받은 韓藥 乾材商으로 錯覺할는지 모르지만 險難한 고비, 많은 苦難의 걸음을 알아야 한다 개인에게는 벅찬 犧牲이요,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이 있다. 이 報償을 生産者와 實需者가 해야 되는데 이 부담을 生産자와 實需者는 아무 불평 불만 없이 해결은 어려운 일이나 그렇다고 個人會社가 감당하기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怨望은 행정당국이요, 묵여가는 者는 末端 公務員이 될 것을 念慮 한다.

애초에 農協, 水協에 準하여 生藥協同組合 育成이 基礎作業임을 생각했어야 되었으리라 지금이라도 生藥協同組合을 構成하여 主產地 育成, 主產地別 保管施設이 되어야, 品種別 適正保管을 期할 수 있으며, 適正保管의 技術研究도 蹉跎이 덜 하리라 생각된다. 農産物 中 하나인 고구마의 例를 들어본다. 가을 收穫된 고구마의 澱粉 含量과 越冬한 고구마의 澱粉 含量에는 顯著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陳倉米의 경우도 그렇다. 오래 貯藏되어 酵素가 死滅되어 糊精으로 要할 때와, 밥으로 먹기 위해서는 酵素의 死滅이 缺點으로 되는 경우와 같이 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材質의 用途에 따른 本質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貯藏施設이 연구되어야 한다. 洋藥에 있어서는 本질 變化가 緩慢하지만 生藥의 本質 變化는 온도, 습도 따라 달라지므로 品種別 適正保管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採取에 있어서는 時期에 따라 藥性 含量이 다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乾燥된 藥으로 分別하기란 熟練을 要하는 어려운 일이다. 이 어려운 問題를 標示없이 넘어오는 規格品制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은 함량 표시가 필요하지만 干先 採取 時期 標示마저도 없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生藥協에서 適期에 競賣 形式으로 한다면 信賴性이 있지만, 個人會社에서 할 경우 누가 그것을 믿어 줄 것인지 疑心스러운 일이다.

결국 적절하지 않는 약품만 유통되게 될 것이니 韓藥의 不信만 招來할 따름이다 이러한 점이 시정되지 않는 規格化가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5. 韓藥材의 採取는 環境保護의 次元에서 規制하는 것이 필요하다.

生藥 採取時 山林의 被害를 看過할 수가 없다. 需要의 양이 많아지니 山林의 毀損이 憂慮되지 아니할 수 없다. 品種의 滅種을 가져오기도 할 것이다. 앞으로 수요가 急增할 경우, 亂獲에 대한 規制를 山林組合에만 依賴할 경우, 生藥 知識에 어두운 그들로서는 圓滑을 期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生藥協同組合이 必要하게 된다. 生協에서 適期에 期限을 定하여 山林保護에 對한 教育, 生藥 品種 保護 및 品質向上에 關한 知識을 교육받은 當地 居住人에게 許可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水協이 그 地域 住民에게 生産物의 採取權을 認定함과 같이 그 地方人에게 生藥 採取權을 委任하여 山林保護와 生藥의 保存을, 愛鄉의 마음으로 管理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圓滑한 醫保事業과 醫藥分業이 중요한 事業일 진데 生協이 農協, 水協, 山林組合에 못지 않은 중요한 機構임에도 基礎作業도 없이 몇몇 個人會社로 尠大한 事業을 맡긴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個人會社는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中間 役割을 하는 會社도 必要하다. 會社는 中間 役割이지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 관장한 기관이 없으니 珍島 枸杞子도 韓國産이요, 他地方 枸杞子도 韓國産이니 質을 追求하려는 者는 中間犧牲을 甘受할 수 밖에 없다. 自由롭게 購入할 수 있도록 流通構造에 國籍 標示에서 地方産地 標示로 特産地를 育成함이 韓藥發展을 위해서나 生産자의 矜持를 위해서 이것만이 올바른 方法이라 생각한다.

生藥協同組合도 民間人 主導로만 이룩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行政的 支援과 財政的 支援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管理 部分의 學術的 研究 및 成分分析의 研究, 다시말해서 效能分析의 糾明에도 支援을 함으로서 健實한 規格化 事業이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또하나 生藥 檢査所의 設立을 主張한다. 韓藥材는 同種 植物일 지라도 藥效 成分 含量 差異는 많다. 種에 따라 優劣이 많음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産地에 따라 質의 차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區分되지 않고 있음은 잘못된 일이다. 韓藥協會 鑑別委員 程度의 檢査가 아니라, 더 徹底한 檢査, 다시 말하자면, 品質, 生産年度, 保管狀態를 分別 할 수 있는 施設과 能力을 갖춘 人力을 保有한 獨立 機構가 필요하다. 情實에 이끌려 製藥 찌꺼기에 가까운 藥材를 鑑別 通關 시켜주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는 國際的 亡身이요, 韓藥發展을 阻害하는 일이다.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獨立된 機構로서 使命感과 技術的 技能, 施設을 갖춘 機構의 設立이 필요하다.

• 結 論

규격화사업은 한약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생산, 보관,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基礎機 構體系에 성패의 관건이 있다. 기구체계의 不完全은 혼선을 초래하고 결국 타사업에 막대한 혼선을 이르게 아무것도 이를 수 없게 되고 만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초기구 체계부터 건 실하게 구축함이 옳다. 그러한 관점에서 생산자 조직으로 生藥協同組合을 구성함이 사업의 시작이어야 한다. 그래야 생산자 보호를 기할 수 있고, 생산자가 있어야 생산품이 있고 생산 품이 있어야 의보고 분업이고가 있지, 약 효능도 없는 외국산 약재를 믿고, 의보 분업을 말함 은 한약계를 망치고 마는 결과가 올 것이다. 어디까지나 약재 생산과 약재보관은 生藥協同組 合에 맡기고 유통은 개개 會社가 함이 옳다.

보관량의 파악이 다음해 생산량 조절에 편이하고 생산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보관시설 도 약종따라 다르니 주생산지 특성에 맞는 시설을 해야한다. 수익도 생산자가 응분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 자연산 약재의 존속보존도 생산자의 소득으로 돌아 갈 때 채취인 자신이 앞장 서 보호할 것이다 품질의 향상도 기할 수 있는 일인데 포장만으로 규격화란 있을 수 없는 일 이다

한약의 가장 큰 약점이 약성 함량의 不一致性이다. 과거 약사들의 주장에 약으로서 부적 정하다는 정도의 대접을 받은 바도 있다. 이 결함을 함량 표시로 보완함이 앞으로 있어야 할 작업이다. 그러자면 먼저 함량검출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기능인력을 갖춘 생약검사소가 필요 한 것이다 이는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만이 이를 수 있다. 이번 규격화 사업에 꼭 갖춰야 할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